

경기침체 장기화에 금값 다시 상승세... 내년 최고점 전망

〈온스당 2200달러〉

실질금리 하락시 美 경기침체 발생
“내년초 온스당 2200달러 돌파 가능”
韓 지난해 1g 당 8만7078원 기록
금 시장 거래시작 이래 최고가 경신



금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내년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장기화와 내년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이 아닌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 분석이 나오면서 금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시장에선 금값이 올해보다 내년 최고점을 경신할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온스당 1987.30달러까지 상승했다.

금값은 지난 5월 온스당 2085.4달러로 역사적 고점을 경신한 뒤, 미국 고금리 여파로 지난 6월 1823.5달러까지 하락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온스당 2000달러 돌파 후 지난 8일 1957달러

까지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내 금시장에서도 금의 인기는 여전하다.

지난달 31일 KRX 금시장에서는 1kg 짜리 금 현물의 1g 당 가격은 8만7078원을 기록했다. 이는 KRX 금시장이 거

래를 시작한 이래(2014년 3월24일) 최고가다. 종전 금 최고가는 지난 5월 11일 기록한 8만6992원이다.

이후 매도압력으로 지난 17일 기준 8만3000원까지 하락했지만 금 인기는 여전히 높다,

하락세를 타던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장기화 때문이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전쟁 같은 세계불안감이 높아질 때 가격이 치솟는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직후인 지난달 10일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해당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9% 상승했다. 15거래일중 3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금값 상승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금값 전망에 대해 내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미국의 경기침체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2%로 전월 3.7%보다 크게 둔화됐다. 지난 7월(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만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준이 내년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하게 되면 완만한 물가 하락과 소비 둔화가 진행되면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금 가격이 더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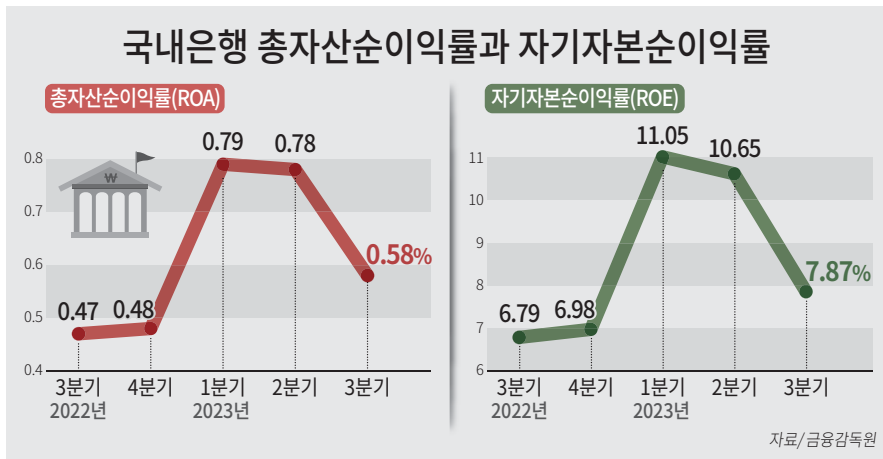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기 침체와 기준금리 하락이 금값 상승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내년 온스당 2175달러 보다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 역시 보고서를 통해 “실질금리가 1%포인트 인하될 때마다 금 가격은 19% 상승한 경향이 있다”며 “내년 1분기 온스당 2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이자장사’ 비판 또 거세지나... 국내 은행, 3분기 이자수익 15兆

올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전분기 대비 1000억 증가해
누적 이자이익 44조2000억



국내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3분기에만 15조원에 육박하면서 ‘이자장사’ 비판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4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이 이어진다면 올해 이자이익은 60조원 안팎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작년보다 많아진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조 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44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 6000억원 늘었다.

순이자마진(NIM)은 올해 들어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대출이 늘어난 덕분에

NIM은 1분기 1.68%에서 2분기 1.67%, 3분기 1.63%로 3분기 연속 하락했다. 반면 대출 등 이자수익자산은 평균 기준으로 2분기 3119조 8000억원에서 3분기 3157조원으로 37조 2000억원이나 늘었다.

비이자수익이 부진하면서 전체 순이

익은 성장세가 꺾였다.

3분기 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조 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 6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19조 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4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자이익은 늘었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매매손실 등으로 비이자이익이 감소하고, 지분 손상차손 등으로 영업외손익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3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8%,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87%로 전분기 대비 각각 0.20%포인트(p), 2.78%p 하락했다.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3분기 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000억원 감소했다. 유가증권관련손익과 외환·과생관련손익이 전분기보다 각각 2000억원, 6000억원 줄었고, 수수료와 신탁관련손익은 전분기와 비슷했다.

3분기 대손비용은 2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6000억원 늘었다. 2분기 중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관련 거액의 충당금이 환입되면서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영업외손익은 -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순이익은 2022년 이후 금리상승과 대출 증가 등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올해 들어 순이자마진과 ROA·ROE 등 지표가 하락하는 등 수익성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금리의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향후 은행의 대손비용 부담도 증대될 것”이라며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현대차·기아, 3차 협력사까지 채용·복지·안전향상 돕는다

정부·전문가 등과 상생협의체 구성
고용장관 “진정한 동행 만들 것”

국내 자동차 업계의 만형인 현대차·기아가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나선다.

현대차와 기아가 20일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글로벌상생협력센터(이하 GPC)에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현대차·기아는 정부, 전문가, 협력사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숙련인력 채용, 직원복지 증진, 산업안전 강화 등 협력사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상생협의체’를 통해 기존 1차 협력사에서 중소 협력사인 2, 3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하는 한편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기아는 11월 말부터 정부, 전문가와 함께 협력사 간담회를 열고 협력업체 현황을 방문하는 등 의제 발굴 및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2024년 1분기까지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상생협력 실천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협약 이행에 상응해 성장, 고용, 복지로 이어지는 자동차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과 기아 최준영 대표이사,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 회장을 비롯해 새로 출범한 ‘상생협의체’의 좌장을 맡은 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는 현대차·기아와 협력사 간 상생모델이 업계 전반을 넘어 기업, 지역, 업종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오늘날 현대차·기아가 글로벌 탑 3로 성장하기까지 현대차·기아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바탕에는 묵묵히 함께 노력해 준 협력사들이 있었다”며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복지를 기반으로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진정한 동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은행 자회사와 추가논의 통해 방안 마련”

▶▶ 1면 ‘금융권, 자영업자’서 계속

최종방안 마련해 연내 추가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탄탄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중개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금감원장은 또 상생 금융이 ‘관치 금융’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금융회사의 상생 노력은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발전을 위해선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금융지주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선 건설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 되어야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금융지주가 지주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금융지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지주는 은행 자회사와 추가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마련해 연내 추가 발표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